

탈북민 대학생의 E-Learning과 멘토링을 통한 디딤돌 프로그램의 개발

이 지 영*

서울사이버대학교

본 연구는 탈북민 대학생들의 자활·자립을 위한 성공적인 정착과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탈북민 대학생들 스스로가 상호 간 노력을 기울여 협력적·협업적 체계를 만들고 이를 통해 스스로를 ‘디딤돌’로 재생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실험·연구하였다. 이러한 실험·연구는 한편으로는 E-Learning을 통해 탈북민 학생들의 시범적인 그룹들을 만드는 실험으로 진행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그룹 내에 멘토링(mentoring) 체계를 가동하여 탈북민 대학생들의 자기-재생산 모델을 구축하는 실험으로 진행하였다. 실험 연구의 결과, E-Learning을 접목한 멘토링 체계와 방법을 통하여 탈북민 대학생들의 학업-직업-정착에서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종합하여 ‘디딤돌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E-Learning, 멘토링, 사회통합, 정착, 디딤돌 프로그램.

* 주저자: 이지영/ 서울사이버대학교 통일안보북한학과 교수/서울시 강북구 솔매로 49길 60
/Tel: 02-944-5198/E-mail: young710@iscu.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이 입국하여 한국 사회에 정착하게 된 지도 오랜 세월이 지났다. 1990년대 중후반에 입국한 사람들은 이미 30여 년이, 그리고 2020년대에 입국한 사람들은 수년의 시간이 경과하는 등 정착 기간은 다양하지만, 정착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존재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탈북민은 난민·이주민이자, 동포·민족·국민 등의 다중 정체성(multiple identities)으로 이해되어 왔으며(신효숙, 김창환, 왕영민, 2016), 또한 ‘먼저 온 통일’이자 ‘통일 전령사(herald)’로 표현되기도 했다(윤인진, 2019). 그동안 탈북민의 한국사회 정착 초기에는 정부의 각종 정책이 상당한 도움이 되었으나 정착 과정에서 정착 자체뿐 아니라 사회통합 과정에서도 상당한 고통과 장애가 존재한다는 사실들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알려져 왔다. 남북하나재단 연구에 따르면, 남한 생활에 남한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탈북민들이 약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북하나재단, 2023).

심지어는 한국에 입국했다가 정착에 실패하여 한국을 떠나는 사례도 그동안 적잖이 보고되어 왔다(통일부, 2022; 조동운, 2014). 그동안 탈북민의 정착 문제와 현실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들과 정책들이 개발되고 실행되었지만 문제의 해결에는 다소 심각한 지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수십 년간 북한에서 살다가 한국에 정착하게 된 탈북민은 가치관의 차이, 사회문화적 이질성, 경제적·심리적·정서적 불안정, 신변보호 등의 문제로 남한 사회로의 적응이 쉽지가 않다. 미래의 한반도 통일을 위해 준비하는 작업에서 탈북민 문제, 그중에서도 탈북민 정착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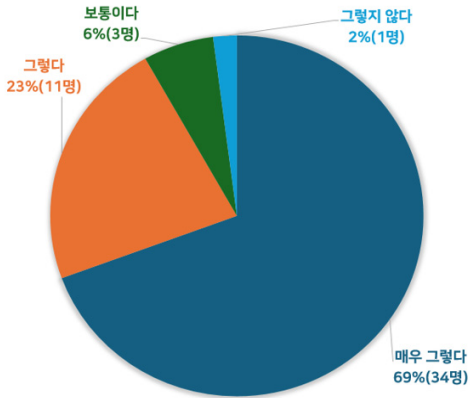
갖는다. 탈북민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경험과 교훈, 시행착오들에 대한 다방면적인 이해는 미래의 통일한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탈북민들의 한국 사회에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실행 및 실현 가능한 모델 개발이 필요함을 판단하고 이에 탈북민의 자활·자립을 위한 성공적인 정착과 이를 통한 사회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총칭하여 ‘디딤돌 프로그램’이라고 칭한다. 탈북민 대학생들 스스로가 상호 간 노력을 기울여 공동체적인 협력적-협업적 시스템을 고안하여 스스로를 재생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험·연구하였다. 이러한 실험·연구를 위해서 E-Learning을 통한 탈북민 공동체의 시범적인 그룹들을 만들려고 시도하였고, 이 그룹 내에서 멘토링(mentoring) 모델, 즉 멘토(mentor)-멘티(mentee)를 통한 탈북민 대학생들의 자기-재생산 모델을 구축하는 방법을 실험·연구하였다. 최종적으로 E-Learning을 접목한 멘토링 모델을 통해 참여-성취-정착-(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구축하는 실험·연구를 진행하였다.

2. 이론적 배경

대학에 진학한 탈북민들은 한국사회에서의 사회 진출과 사회정착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있다. 탈북민 대학생들이 학업 및 교육의 기회를 선택하게 된 이유도 대부분이 취업과 정착에 유리한 자격(자격증 등 취득)을 갖추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하였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조사에 따르면, S사이버대 탈북민 설문 대상자들의 절대다수(약 92%)가 대학교육과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한 정착 및 통합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기간에 많은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한다.



[그림 1] 대학교육 선택 이유

본 연구는 S사이버대 학의 탈북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즉 E-Learning과 멘토링이 자아 존중감을 육성함으로써 탈북민의 성공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S사이버대 학의 E-Learning과 같은 지식 전달, 지식 창출 과정, 탈북민 교육생들의 멘토링에로의 참여와 재생산, 그리고 이를 통한 성취-정착-통합의 전체 과정을 실험적으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개의 문제제기를 통해 연구의 방향을 잡아 실험·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E-Learning이 탈북민의 자아 존중감 형성에 갖는 긍정적인 인과관계를 추적한다. 둘째, 멘토링(mentoring)을 통한 실험 연구이다. 멘토링을 통해서 디딤돌의 생산·재생산, 공동체 형성 등을 도모하는 모델을 구축한다. 셋째, E-Learning 교육 과정을 접목한 교육-직업-정착의 종합적·융합적 프로그램을 실험적으로 개발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탈북민의 교육,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종합적 프로그램을 총칭하여 ‘디딤돌 프로그램’으로 칭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디딤돌 프로그램’을 최종적으로 도출하는 실험 연구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참여 관찰법’(participant observation), 설문 및 ‘심층 면접’, 그리고 해외 연구 사례의 성찰이다.

1. 참여 관찰 연구 진행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참여 관찰법’(participant observation)이다. ‘참여 관찰법’은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직접 보고 느끼면서 관찰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며 질적 연구에 해당하여 자료의 실제성이 높은 방법이다(James P. Spradley, 1988).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 자신이 장기간 S사이버대 내 D학습지원센터에서 탈북민 학생들과의 포괄적이고 직접적인 참여와 동행(同行)을 통해서 탈북민 교육생들 그룹 및 그 그룹 내 개인들과 친밀감을 획득하면서 관찰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자가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이 되는 탈북민 학생들과 함께 생활·활동하면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행태들을 관찰하고 기록하였다.

2. 설문 및 심층 면접

설문 및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다. S사이버대 탈북민 대학생(150여 명) 중 디딤돌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정량적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와 함께 정성적 분석을 위한 심층 인터뷰(2024.6~7월)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의 경우, 49명을 대상으로 15문항의 설문을 실시하였고([부록] 참조), 객관적이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모바일 링크를 활용하였다. 심층 면접 인터뷰의 경

우, 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멘토 4명과 멘티 6명을 인터뷰하였다.

3. 해외 연구 사례 성찰

해외 사례를 성찰하여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연구에 관련시켰다. Ager와 Strang(2008)의 이민자 사회통합 모델(migrant integration model)등을 통해 탈북민의 한국사회로의 정착과 사회통합을 연구하였다(Ager & Strang, 2008). Ager & Strang은 고용(employment), 교육(education), 보건(health), 주거(housing)를 통합 지표(markers)이면서 통합의 수단(means)으로 언급하였고, 성공적인 통합은 시민권, 사회적 관계, 촉진자 등 다른 영역들과의 상호작용이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E-Learning과 멘토링을 주요한 분석 주제로 삼고 있기에 상기(上記)의 통합지표 및 수단 중 ‘교육’에 중점을 두고 실험·연구를 하였다. 교육은 기회의 공평, 이주민의 자녀나 본인이 의무교육뿐 아니라 고등교육 및 기술교육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하며, 교육수준 및 기술교육은 추후 경제적 참여와 연결되므로 경제적 통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Ager & Strang, 2008).

III. 실험 연구의 진행

1. 실험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

본 실험 연구의 E-Learning과 멘토링 등에서는 인터넷, 시민교육, 의사소통, 발표 등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교육 콘텐츠들을 투입하여 진행하였다. 현재 탈북민들의 교육 문제는 사회통합과 정착에서 매우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역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탈북민의 교육 수준은 전체적으로 낮은 편이며, 북한에서 받은 교육내용의 한국사회에서의 호환성

도 낮은 수준이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2023)에 따르면, 따르면, 따르면, 남북통합학력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 이후가 3.4%, 중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64.4%, 전문대학 졸업 이하가 14.3%, 대학교 재학 이상이 17.5% 등이었다. 초·중·고·대학의 중도 탈락률도 일반 국민에 비해서 높았고 학업 격차도 높았다(남북하나재단, 2020). 그리고 사교육 접근성도 낮아 전반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여 있다. 특히 탈북청소년의 경우 2020년 현재 학업중단율이 남한 학생의 3배에 달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남북하나재단, 2023). 따라서 탈북민의 경우, 특히 한국 사회 정착과 사회통합에서 ‘교육’은 대단히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교육’이라는 영역(E-Learning, 시민교육 등)에 초점을 맞추어 실험 연구를 진행하였다.

2. E-Learning의 진행

본 연구에 진행한 E-Learning은 두 가지 과정을 포함한다. 하나는 S사이버대 학교의 교육과정 전체를 의미한다. S사이버대 학교의 전체 교육과정은 PC와 인터넷 기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E-Learning의 대표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E-Learning은 특히 탈북민 학생들에게는 생소하며 접근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다른 하나의 과정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었다. 즉 이러한 E-Learning으로 진행되는 대학 교육과정에서 직면하는 난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이다.

여기서 탈북민 대학생은 S사이버대에 재학 중인 탈북민 학생을 의미하는데, 이들의 연령은 20대에서 6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은 전업 학생보다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업인들이다.

그리하여 본 실험 연구에서는 탈북민 학생들의 그룹을 만들고, 이 그룹을 대상으로 PC(프로그램) 역량 강화 교육, 인터넷 활용 능력 강화 교육을 실시

하였다. 이것이 본 연구에서 진행하는 E-Learning의 중요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본 실험 연구는 장기간 S사이버대 내 D학습지원 센터를 통해서 진행되었다. 2020년 9월부터 2024년 6월에 이르는 약 3년의 기간 동안 진행되었다. 특히 2024년 상반기에는 매주 토요일 16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총 14회의 E-Learning 교육과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E-Learning 교육으로는 PC·인터넷 활용 능력, 리포트·토론문 작성, 스터디 및 스피치, 학교생활 적응 등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E-Learning을 통한 자아 존중감의 생산은 일종의 교육 효과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교육 효과를 가능한 한 극대화함으로써 사회정착과 사회통합을 용이하도록 설계하였다. E-Learning을 통한 실험 연구의 진행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탈북민 개인의 자아와 자신에 대한 신뢰감과 존중감, 직장/가정 등 탈북민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탈북민 개인에게 기대된 역할과 지위에 대한 자신감 등이 크게 상승하였다(IV. 실험연구의 결과' 참조).

3. 멘토링의 진행

본 실험 연구에서 진행한 멘토링은 본 연구뿐 아니라 이미 다양한 주제영역에서 많은 연구들이 사용하였던 모델이다. 예를 들면, Kram(1983)은 경험과 지식을 소유한 연장자가 연하의 동료나 후배에게 경력 및 대인관계 개발을 위해 건의, 도움, 지원, 상담 등을 제공해 주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Kram, 1983). Noe(1988)의 경우, 경험이 풍부한 연장자가 젊은 후배에게 지혜를 전수하고 이들이 조직의 공식적·비공식적인 규범에 적응하도록 도와준다는 점, 업무 관련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계로 보았다(Noe, 1988). 국내에서는 이상호·이만기(2006)의 연구가 본 연구에서의 멘토링 개념과 가

장 근접한 데, 이들은 멘토링을 경험 많은 선배가 경험이 부족한 후배 멘티의 경력개발 및 조직 적응 등을 지원해 주는 과정으로 보았다(이상호, 이만기, 2006).

본 실험 연구에서는 기존의 멘토링 연구에서 사용하는 개념들을 광범위하게 수용하여 사용하였다. 탈북민 간의 멘토링에서는 첫째, 멘토들은 S사이버대 내의 이미 한국 사회에서 성공적 탈북민이 만든 소그룹 리더, (E-Learning 등의) 지도교수, 그리고 (먼저 남한 사회에 정착한) 선배 탈북민 등이 맡아서 진행하였다. 둘째, 멘티들은 S사이버대 학생들 중 학업과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 졸업과 함께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있지만 역량에서 부족을 느끼는 학생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탈북민'(mentee) 등이다.

멘토인 선배 탈북민과 멘티인 후배 탈북민이 주체가 되어 일정기간 학습(E-Learning 등)을 위한 관계를 맺도록 하였다. 본 실험 연구는 E-Learning과 함께 진행되었고, S사이버대 내 D학습지원센터를 중심으로 2020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멘토링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실험 연구에서는 탈북민의 학습, 사회적 및 정착 등에 필요한 다양한 차원의 콘텐츠들을 활용하였다. 콘텐츠 중 대표적인 것은 사회 적응을 위한 콘텐츠들이었다. 탈북민 학생들의 사회 적응에 필요한 것들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멘토링 과정에 투입하여 진행하였다. 특히 의사소통, 취업역량, 직무 능력, 민주시민교육, 다양한 문화·체육·탐방 등의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탈북민 선후배들의 멘토링을 통해서 선배 탈북민이 멘토로서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발휘하여 멘티인 후배 탈북민의 잠재적인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멘토링 체계와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후배 탈북민이 상호 성장하게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IV. 결과

1. 설문 조사 및 심층 면접의 내용

□ E-Learning-자아존중감-정착/통합의 상호 관계 분석

- E-Learning의 내용과 도움(영역)
 - E-Learning의 내용(교육과정, PC 활용능력, 인터넷 등)
 - E-Learning의 도움 여부와 도움 영역
- E-Learning이 자아존중감에 미친 영향
 - 자아존중감에 영향 여부
 -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 영역 (가정, 직장 등) 정착/통합에 영향 여부

□ 멘토링-정착/통합의 상호 관계 분석

- 멘토링의 내용과 도움(영역)
 - 멘토(mentor)-멘티(mentee)의 실질적 도움 여부
 - 멘토링(mentoring)의 도움 사례 분석
 - 멘토-멘티와 자아 존중감 형성
 - 탈북민에게 멘토링 모델의 향후 방향
- 디딤돌 프로그램의 내용의 도움(영역)
 - 디딤돌 프로그램의 양향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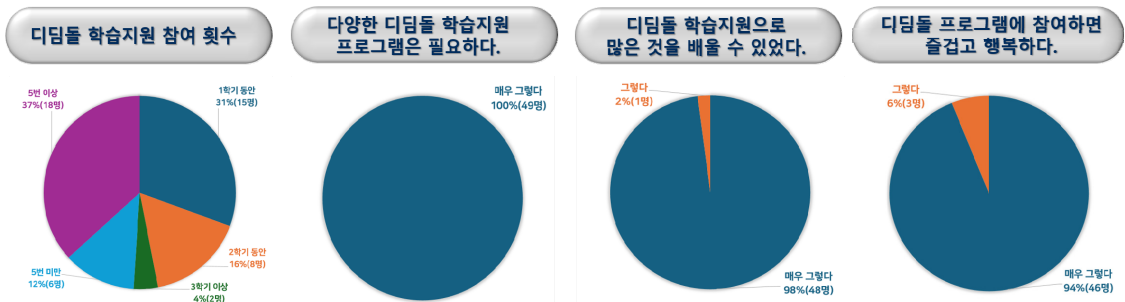
- 디딤돌 프로그램이 미친 영역 (가정, 직장 등)
- 정착/통합에 영향 여부
정착/통합에 영향을 미친 구체적 사례 분석

□ 정착/통합 및 직업-학업-정착 관련 사항들

- [직업-학업]의 병행과 관련된 사항들
 - 학업이 직업에 미친 영향 여부
 - 학업이 직업에 미친 영향 영역(역량, 자신감, 신뢰 등)
 - 삼자(직업-학업-정착)의 유기적 관계 존재 여부

2. 실험 연구의 결과 분석

설문 조사에 응한 대상자들 중 디딤돌 학습지원에 5번 이상 참가한 학생은 37%로 가장 많았고, 1학기 동안 참가한 학생이 31%, 2학기 참가한 학생 16%, 3학기 이상은 4%였다. 설문에 응답한 대학생들 모두(100%) 다양한 디딤돌 학습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밝혔는데, 그 이유로 모두 디딤돌 학습지원으로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그리고 모든 응답자들이 디딤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즐겁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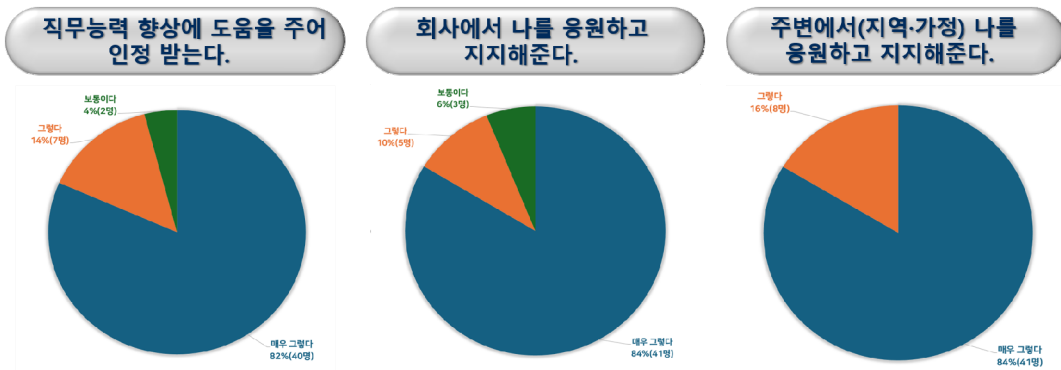
[그림 2] 디딤돌 학습지원 참여 횟수와 필요 이유

1) 자아 존중감과 직업 능력 향상

E-Learning에 대한 학습지원을 통하여 탈북민들의 자아존중감이 형성되었다. 응답자 중 한 사람은 “늦은 나이에 두렵기도 했는데...이제는 당당하게 자신감을 참을 수 있어서 나한테는 생명수 같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다양한 긍정적 결과 중의 하나였다.

E-Learning을 통한 교육과정은 직무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어 직장에서 자신이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96%로 매우 긍정적인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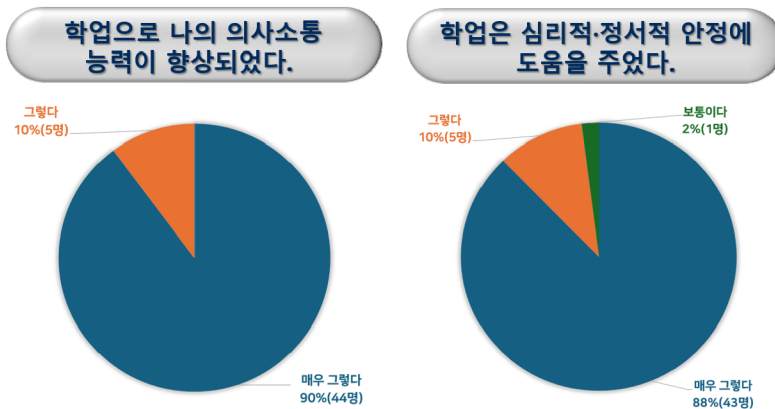
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결과 회사에서 자신을 응원하고 지지해 주게 되었다는 비율은 9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가령, 응답자 중 한 사람은 “학업과 직업을 병행한 덕분에 회사에서도 인정받아 승진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지역과 가정에서도 자신을 응원하고 지지해 주게 되었다(가령, 어떤 응답자는 “탈북민 엄마라고 학교에 나타나지 말라던 아들이 컴퓨터도 사주고, 모르는 것은 언제든지 알려 준다”고 응답했다)는 응답 비율은 100% (매우 ‘그렇다’ 84%, 그렇다 16%)로서 대단히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림 3] E-Learning 학습지원의 결과

그리고 설문 응답자들은 멘토링과 E-Learning 학습이 자신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켰으며(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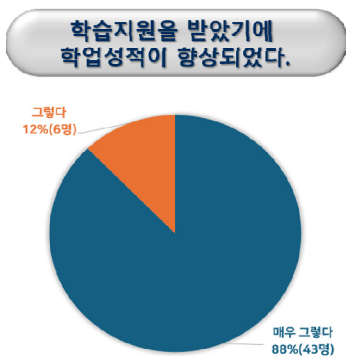
그리고 이러한 학습과정이 심리적·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었다(98%)고 응답하였다.



[그림 4] E-Learning과 Mentoring의 결과

2) 멘토링과 발달 향상

E-Learning을 통한 멘토링 프로그램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탈북민 간의 멘토링은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있지만 ‘경험이 부족한 탈북민’이 멘티(mentee)를 그리고 이미 한국 사회에서 성공적 탈북민이 만든 소그룹 리더, (E-Learning 등의) 지도교수, 그리고 (먼저 남한 사회에 정착한) 선배 탈북민 등이 멘토(mentor)를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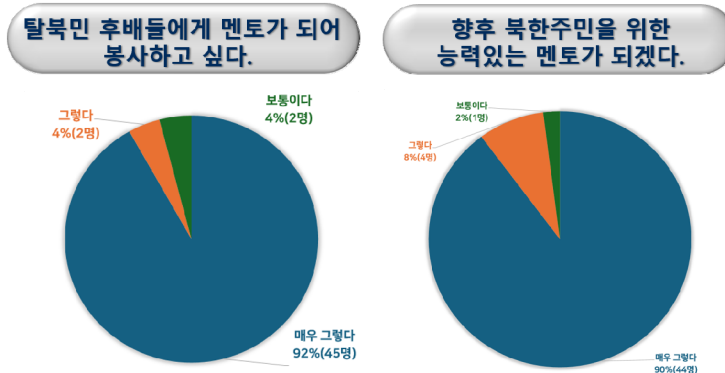
[그림 5] 학습지원과 학업성적 관계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모두(100%)는 멘토링과 E-Learning을 통해 학습지원을 받고 학업성적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멘토링에서 E-Learning의 역할은 선배가 후배에게 E-Learning의 지름길에 대한 경험담을 전수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PC 활용 능력 전수를 매개로 하는 멘토링이 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멘토-멘티 간의 신뢰와 라뵈(rapport)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학습과 멘토링을 통해서 후배 탈북민의 한국 사회에 대한 정착 역량에서 긍정적인 ‘발달-향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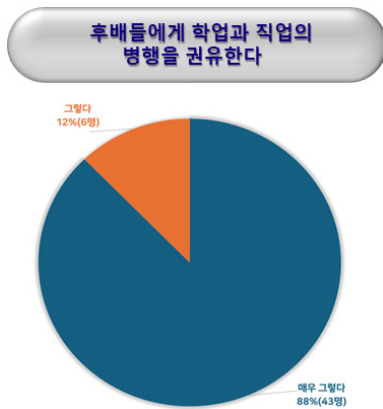
3) 디딤돌 현상

E-Learning을 통한 멘토링은 결과적으로 ‘디딤돌 현상’을 보여주었다. ‘디딤돌 현상’이란, 유사한 상황과 처지에 있는 선후배 탈북민들이 상호 간의 역량 개발 및 지식 전달/개발 네트워크 등을 형성하여 성공적 사회진출을 위한 디딤돌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즉, 초창기 멘토가 이후에 멘토 역할을 하게 될 멘티를 교육·육성하면서 또 하나의 ‘디딤돌’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디딤돌을 통해서 새로운 멘토들이 새로운 멘티들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게 되는 현상이다. 종국적으로 이는 탈북민 학생들 스스로가 성공적인 자신을 재생산하는 과정에 존재하게 되는 일종의 자기-재생산(self-reproduction)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6%가 자신이 향후에 멘토가 되어 후배 탈북민인 멘티에게 봉사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6] 학습지원 이후 디딤돌 역할 의사

디딤돌 현상에서 E-Learning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였다. S사이버대 학교 디딤돌 프로그램에서는 E-Learning과 PC 및 인터넷/IT 역량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다. 먼저 교육을 받은 선배가 디딤돌이 되어 후배 탈북민을 지도하는 방식으로 확대 재생산되었다. 이는 대학생 공동체에 그치지 않고 전체 탈북민과 북한 주민에 대한 멘토 역할을 인식하는 단계로도 나아갔다. 설문 대상자의 98%가 향후 북한 주민을 위한 능력 있는 멘토가 되겠다는 응답을 하였다.



[그림 7] 후배들에게 권유 의사



[그림 8] 학업-직업-정착 병행 모델

본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종합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Ager와 Strang(2008)가 언급했던 요소 중 ‘교육’(E-Learning)은 S사이버대 탈북민 학생들에게 사회정착 역량과 사회통합 능력을 향상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E-Learning을 매개하는 멘토링 혹은 멘토링을 매개하는 E-Learning은 탈북민 학생들에게 그 효과를 더욱 확대하고 확산시킬 수 있었다. 이로써 본 연구를 통해 학업(E-Learning)-직업-정착의 관계에서 이 삼자가 멘토링을 경유하여 ‘동시에’(혹은 병행해서) 진행될 때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결과적으로는 E-Learning이 탈북민의 직업생활과 정착 능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설문 대상자들 모두(‘매우 그렇다’ 88%, ‘그렇다’ 12%)가 학업과 직업의 병행이 정착과 통합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후배 탈북민에게 권유하고 싶다고 답변하였다.

V. 결론

디딤돌 프로그램의 도출

E-Learning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험적으로 진

행한 이후 참여 탈북민 대학생 그룹에 대한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에서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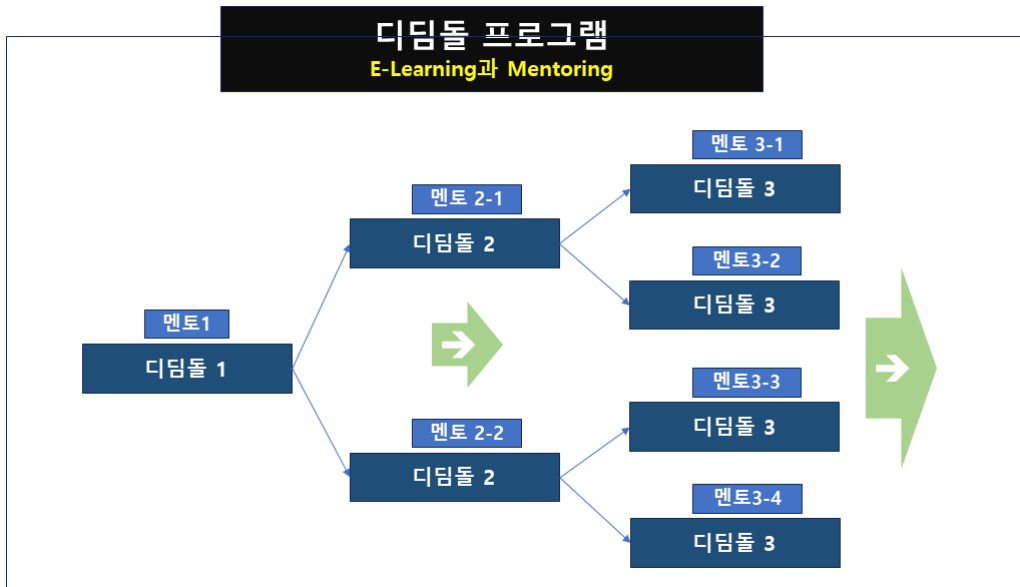
- 직장에서 인정을 받았다. 승진 및 봉급 인상 등의 사례가 존재했다.

가정 내에서의 긍정적인 관심(가정 내 화목 증진)과 지위가 인정되었다.

- 사회생활에서도 만족도가 상승하였다. 타인들로부터의 신뢰도가 상승하였다.
- 남북한 주민 간의 문화 역량 등에서 차이가 감소하였다.
- 정착 역량이 향상되었고, 이는 사회통합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上記)의 다양한 조사결과들을 종합하여 하나의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실험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E-Learning과 멘토링을

통한 탈북민들 상호간의 교체와 협력, 상호간의 정보 제공, 멘토 양성 등은 확대 재생산을 위한 ‘디딤돌’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 해당했다. 특히 멘토링을 통한 선후배 탈북민들 간의 파트너십 형성, 멘토가 접촉한 멘티를 또 다른 멘토(멘토1 → 멘토2 → 멘토3...)로 만드는 ‘디딤돌’의 생산 및 재생산(디딤돌 1 → 디딤돌2 → 디딤돌3...) 등은 종국적으로 탈북민들의 사회정착과 사회통합을 점차 완성해 내는 일종의 공동체의 성격을 발전시키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을 우리는 ‘디딤돌 프로그램’의 실험적 모델로 설정하고자 한다.



[그림 9] 디딤돌 프로그램의 재생산 구조

본 연구에서 진행한 실험적 연구는 E-Learning과 멘토링을 통하여 탈북민 학생들 자체가 상호 간 노력을 기울여 협력적·협업적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협력적·협업적 시스템이 일종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나아갔는데, 말하자면, 스스로를 재생산할 수 있는 일종의 탈북민학생들의 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다. E-Learning과 멘토링을 겪어왔던 이러한 탈북민 학생들의 공동체적 노력이 탈북민의 한국사회의 사회정착과 사회통합에도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탈북민 간의 사회적 유대와 상호 역량 확대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 신효숙, 김창환, 왕영민 (2016). 북한주민, 탈북자, 북한이탈주민: 시공간적 경험 공유 집단 분석을 통한 북한이탈주민 속성 재해석. *통일인문학*, 6, 41-80.
- 유몽문 (2018). 멘토역량이 멘토링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 경영학과 석사논문*.
- 윤인진 (2019). 탈북민의 사회통합 모델과 통합 실태. *문화와 정치*, 6(1), 61-92.
- 이상호, 이만기 (2006). 멘토역량과 멘토링기능에 관한 모델연구. *전문경영연구*, 9(1), 229-262.
- 조동운 (2014). 탈북민 정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탈북청소년실태조사 (2020). 남북하나재단.
- 북한이탈주민정착실태조사 (2023). 남북하나재단.
- 국정감사 답변자료 (2020). 통일부.
- James p. Spradley 저, 이희봉 역 (1988). 문화연구를 위한 참여관찰방법.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A.Ager & A.Strang (2008). Understanding Integration: A Conceptual Framework, *Journal of Refugee Studies*, 2(2),166-191.
- K.E.Kram (1983). phases of the Mentoring Relationship.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6(4), 608-625.
- R.A.Noel (1988). An investigation of the determinants of successful assigned mentoring relationships. *Personnel Psychology*, 41(3), 457-479.

투고일자: 2024. 12. 20.

심사일자: 2025. 1. 30.

게재확정일자: 2025. 2. 11.

[부록] 설문지

탈북민의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디딤돌 프로그램' 개발 [디딤돌학습지원 참여자 1차설문]							
<p>안녕하십니까?</p> <p>바쁜 학업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p> <p>본 설문지는 서울사이버대학교 탈북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진행되는 디딤돌 학습지원센터가 탈북민들의 남한 사회 정착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익명으로 진행되는 설문입니다.</p> <p>여러분의 응답은 현재 탈북민 남한 사회 정착뿐만 아니라 통일과 남북통합에 이바지 하게 될 것이며 관련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조사결과는 순수한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게 되며 여러분이 응답해 준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절대적으로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p> <p>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주신 여러분의 호의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지영 교수 -</p>							
1. 디딤돌 학습지원 참여							
		5번 미만	5번 이상	1학기 동안	2학기 동안	3학기 이상	
1	디딤돌 학습지원에 참여횟수	①	②	③	④	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2	다양한 디딤돌 학습지원 프로그램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디딤돌 학습지원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4	디딤돌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즐겁고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⑤	
5	탈북민 후배들에게 멘토가 되어 봉사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2. 자아존중감 향상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6	학습지원을 받았기에 학업성적이 향상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7	대학기간에 많은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학업으로 나의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9	학업은 심리적·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10	직무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어 인정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11	학부를 졸업하면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회사에서 나를 응원하고 지지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3	주변에서(지역/가정) 나를 인정해주어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⑤	
14	후배들에게도 학업과 직업의 병행을 권유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향후 북한주민을 위한 능력 있는 멘토가 되겠다.	①	②	③	④	⑤	
3. 디딤돌 학습지원 프로그램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점과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Development of the Stepping Stone Program for North Korean Defector University Students through E-Learning and Mentoring

Ji Young Lee

Seoul Cyber University

This study sought to develop a comprehensive program to foster the successful settlement and social integr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 university students by enhancing their self-sufficiency and independence. This study explored the mechanism through which these students could cultivate a collaborative and cooperative framework, allowing them to serve as “stepping stones” for one another in their adaptation and growth. This experimental study was conducted using two primary approaches. First, it involved the establishment of pilot groups of North Korean defector students utilizing e-learning as a foundational platform. Second, a structured mentoring system was implemented within these groups to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a self-sustaining, peer-driven support model. The findings revealed that the integration of mentoring systems with e-learning had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s on students’ academic pursuits, career pathways, and overall resettlement experiences. Based on these insights, this research aimed to synthesize these elements into a structured and comprehensive initiative, ultimately conceptualized as the “Stepping Stone program.”

Keywords: E-Learning, Mentoring, Social Integration, Resettlement, Stepping Stone program.